

## Art in Flux – the Metamorphosis of Choi Euncheol

Art that reflects the pulse of time during an era of dematerialization poses a significant artistic challenge. However, Choi Euncheol is not daunted by it.

The issue of the interplay between socio-cultural structures and material layers in the face of relentless technological advancement is one that the artist confronts with composure. This is because our present socio-cultural structures do not inherently possess greater morality. Choi's response to the escalating self-centeredness inherent in pervasive selfie culture is to deliberately remove human agency from his artistic work, focusing solely on the material itself and its impact. For Choi, humans and substances are inseparable, with substances being essential to life. People believe in what they see.

His artworks are self-contained objects, their worth deriving from their historical significance rather than their market value.

Furthermore, his choice to delve into history is well-founded, as the inclination to seek connections with tradition predates the human desire to slow down.

The focal point of his artistic practice centers around ancient vases, which have not lost their allure as the earliest human artifacts. Among the tangible examples are vases unearthed in Seoul during the Corona period.

Ancient vases, often regarded as vessels of artistic and historical significance, hold a rich symbolism that provides insights into the cultures and civilizations of the past. These exquisite works of art, created by skilled craftsmen in various ancient civilizations, serve as windows to the beliefs, customs, and narratives of bygone eras.

One of the key symbolic aspects of ancient vases lies in their form and shape. The vessel represents containment and preservation, symbolizing the human desire to capture and immortalize life's fleeting moments.

On the other hand, the durability of Choi's vases is compromised by using sugar as an artistic medium. Their decay is inevitable. Sugar is an unstable material that melts, and the artist intentionally speeds up the dematerialization process by exposing them to the heat of a halogen lamp. The method of materialization and dematerialization, the metamorphosis of existence, reminds viewers of the ephemeral nature of all materials and is a striking reflection of the transformative processes of our time.

Vases also symbolize abundance, prosperity, and enjoying life's pleasures. Choi also reverses this symbolism, reminding us of the ephemeral nature of wealth and power.

The sugar vases are perceptible both visually and sensually. Moreover, the form, which naturally deforms or disappears over time, creates narrative moments that transform art into a mysterious art and can provide solace. The concept and idea remain, manifesting through the documentation of the artistic process. His video sequences of the drought period are additional layers of transformation.

Artists are the true seismographs of our time as they uncover societal transformation processes. The 21st century has become fragile. Things disappear, but within the cyclical existence, dematerialization is continually restored. Choi's work reveals the harmony between substances, art, and our lives.

-Annette Doms, ICAA

## 예술의 무상함을 깨닫다

비물질화 시대의 예술 창작 과정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예술적 도전이다. 최은철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시대적으로 최적화된 일시적인 재료, 특히 설탕을 예술적 매체로 선택한다.

그의 작품과 설치물들은 일반 관객의 전형적인 기대를 의도적으로 방해한다. 이는 그의 대부분의 작품이 비판적 관찰을 통해 능동적으로 체험하도록 설계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작업은 유물로서의 매력을 잃지 않는 오래된 화병, 즉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서울에서 발굴된 도자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예술적 비전을 보여주는 그의 전시는 세심하게 선별된 시간의 갤러리처럼 펼쳐진다.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장식된 꽃병의 세심한 배열은 보는 사람을 신비한 고대의 경이로움으로 안내한다. 언뜻 보기에 이 전시회를 고고학 박물관을 매력적으로 각색해 놓은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역사의 메아리가 각각의 섬세한 유물을 통해 울려 퍼진다.

그러나 이 설치 작품을 보는 관객들이 그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 설탕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영속성을 거부하며, 분해와 변형의 매혹적인 여정을 받아들이는 예술의 변화과정을 목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종종 예술적,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그릇으로 간주되는 고대 꽃병의 경우 풍부한 상징성을 바탕으로 과거의 문화와 문명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다양한 고대 문명의 숙련된 장인이 만든 이 정교한 예술 작품은 지나간 시대의 신념, 관습 그리고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창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꽃병의 주요 상징성 중 하나는 형태와 모양에 있다. 그릇 자체는 유한한 삶의 순간을 포착하고 불멸화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며 그것을 담아내고 보존하는 형태와 모양인 셈이다.

반면에 최은철의 화병은 설탕을 예술적 매체로 사용함으로써 내구성을 희생시킨다. 설탕 화병의 변질은 피할 수 없다. 설탕은 언제나 녹아 내릴 수 있는 불안정한 물질이며, 작가는 의도적으로 설탕 화병을 할로겐 램프의 열에 노출시켜 비물질화 과정을 가속화시킨다. 인간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비물질화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이처럼 최은철의 작업은 물질화와 비물질화의 과정, 존재의 변태는 모든 물질의 덧없음을 일깨워주며 우리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화병은 또한 풍요, 번영, 삶의 즐거움을 상징한다. 그런데 작가는 이 상징성을 뒤집어 부와 권력의 덧없음을 상기시킨다.

최은철의 설탕 꽃병은 시각적으로도 감각적으로도 인지 가능한 형태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형되거나 사라지는 형태는 평범한 예술을 신비로운 예술로 탈바꿈시키고 인간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서사적 순간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 다큐멘터리를 통해 담아낸 예술적 과정을 설명해줄 개념과 아이디어만이 남는다.

예술가는 사회적 변화 과정을 밝혀내는 우리 시대의 바로미터이다. 21 세기의 가치는 언제나 깨질만큼 취약해 졌다. 사물은 사라지지만 순환적 존재 안에서 비물질화는 지속적으로 복원된다. 최은철 작가의 작업은 물질의 조화, 예술과 우리 삶의 조화를 명료하게 발굴해내고 있다.